

사설

불교교육의 轉機로 삼자

중앙승가대학이 승가교육 전문 대학으로 정규대 승격 인가를 받고 이에 앞서 태고종이 동방불교 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허가를 낸 것은 향후 불교 인재양성을 위한 밝은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일정과 교과과정 및 학사제도에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수행승'으로서의 태도를 철저히 익히게 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듯이, 교육이 없다면 사회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진취적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통학생을 없애고 전원 수행관에 수용하여 주간은 교학강의, 야간은 좌선실수, 열불수행으로 인간의 불을 수정하는 교육이어야 불교인재육성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 승가교육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앙승가대학은 오직 승려의 전인교육만을 위한 교육도량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넷째, 중앙승가대학의 학인은 개인적인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인에 대한 기대는 종단, 스승, 신도 모두임을 알아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인이 되어야 한다.

승가대학은 승려가 되기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찰의 승려의 기초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학에 몇 가지 기대와 전망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섯째, 종단과 신도단체는 중앙승가대학의 육성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학인들이 오직 학문적 수행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첫째, 중앙승가대학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가 주어지고, 복지학과는 1급 복지사 자격이 수여된다. 따라서 출가 군법사를 충원할 수 있고 불교 복지시설 경영에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종단과 신도단체는 중앙승가대학의 육성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학인들이 오직 학문적 수행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둘째, 출가 스님으로 신형적 기초 위에 전개된 불교학문의 발전이다. 물론 동국대학교와 지방승가대학에서 학문적 발전이 있어 왔지만 중앙승가대학이 인가됨으로써 스님학자의 자변화대라는 측면에서 불교학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다섯째, 종단과 신도단체는 중앙승가대학의 육성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학인들이 오직 학문적 수행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셋째, 내실있는 전인적 수행자 양성이 기대된다. 앞으로 중앙승가대학은 이뿐만 아니라 내세우지 말고 철저한 승가교육상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일반대학교와는 학사

다섯째, 종단과 신도단체는 중앙승가대학의 육성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학인들이 오직 학문적 수행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넷째, 내실있는 전인적 수행자 양성이 기대된다. 앞으로 중앙승가대학은 이뿐만 아니라 내세우지 말고 철저한 승가교육상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일반대학교와는 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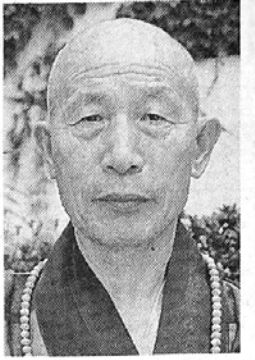
다섯째, 종단과 신도단체는 중앙승가대학의 육성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학인들이 오직 학문적 수행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지난 16일 연강홀에서 열린 '창작물공도'를 위한 사육제. 대한불교 승려청년회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이 찬불동요 '화합의 노래'를 선보이고 있다.

"새싹포교 어떤 불사보다 중요"

"조계종단에서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청소년의 해로 설정해 한해동안 각종 청소년포교 활동을 펼친것은 획기적인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운문스님 (운문사 주지)

청소년을 위한 찬불가 3백여곡을 직접 작사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활동을 펼쳐온 운문스님(운문사 주지)은 올 한해 청소년 사업을 평가하는 말로 불교청소년의 해 원년을 진단했다.

을 발일 당시 '왜 법당에서 노래를 부르냐, 기도나 열심히 하지'라는 말을 순하게 들으며 어렵사리 새싹포교 포교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새싹불자들의 1996년

청소년포교는 미래불교를 일궈낼 동력을 길러내는 중추적인 과제다. 따라서 본지는 '새싹불자를 키우자'는 연중 캠페인을 벌였다. 조계종도 '불교청소년의 해'를 선포, 청소년문화축제, 캠프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쳤다. 올 한해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새싹불자들의 소감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것이였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도 전대만 오는데 20여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용인원이 적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장애인을 돕는데 인원이 무슨 소용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대입으로 다투었던 것과 불교학생회 활동하느라고 일요일도 없이 다녀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경주남산순례 '기억 생생'

홍희님(부산 백산초등 2년) 한해를 되돌아 보니 많은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 중에서도 경주 남산순례에 참석한 것이 가장 생생하게 떠오른다.

오랫만에 엄마 아빠와 같이 산에 가니 좋았고 또래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 든든하고 기분도 좋았다. 비탈길이나 거친 바위를 올라갈 때 힘들고 아슬아슬했지만 부처님이 우리를 반기고 있어 든든했다.

큰 불상이나 탑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산에 조상님들의 착한 마음이 가득들어 숨쉬고 있는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부처님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착하고 순진하니까. 내가 남산

이웃위한 봉사 '큰 보람'

박민혜(청소년자원봉사센터) 금년 초 정교련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찾았던 것이 인연이 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보람과 재미도 느끼게 됐다. 특히 악물 남용예방, 탐굴공인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은 의미 깊었던 활동으로 하니까. 모든 봉사가 즐겁고 보람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던 중 아주 보람있는 일을 하게됐다. '작은 자리'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학교마다 편지를 보내는

"수계받고 불자됐어요"

박혜숙(경남여고 2년) 지난 여름 울산 정토사에서 개최한 수련대회에 참석 '인혜수'라는 법명을 받았다. 수계를 받고 나니 부처님이 더욱 자비스럽게 보였다.

앞으로 인혜수라는 법명처럼 어질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마음안에 평안을 찾아가는 법발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올해 나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많은 스님과 친구 선배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어서 결실이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 친구들과 의견

수 있으리라. 노인들이 푸근한 환경에서 세월을 인정하고 늙음을 받아들일 때 후손들은 아름답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반조하고 또 앞을 예견하는 눈도 볼 수 있다.

인생의 황혼

노인의 모습은 훗날 젊은이의 모습이다. 나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인생 황혼기를 끝까지 장식한 노인들이 남긴 말을 음미하면서 병자년 한 해를 마무리해보자.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인생

은 살만한 것이라는 사실은.(로드리스·68세)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덕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 하나는 배웠소.(인스턴 처칠·76세) "남은 날들을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피터·80세) "어떠한 것도 늦은 때란 없다. 지친 심장이 고통을 멈출때까지는.(통펠로·80세) "나이가 시든 것을 떨구듯이 내 마음이 늙은 생각을 털어낼 수 있다!(오 나니의 빛깔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앙드레 지드·77세) "화가에게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피카소·82세) "살아있는 한 나는 글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서 죽을 것이다.(버디쇼·91세)

남을 괴롭히면...

남들을 갖가지로 괴롭히면서 그것으로 제 복을 얻으려 하면, 도리어 재앙이 자신에게 돌아와 스스로 많은 원한 먹어야 하리다. (법구경)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남을 괴롭히면... 남들을 갖가지로 괴롭히면서 그것으로 제 복을 얻으려 하면, 도리어 재앙이 자신에게 돌아와 스스로 많은 원한 먹어야 하리다. (법구경)

현대만평 박구원. 북한동포 조선통 동계운동. "춤고 배고픈 심정 제가 알지요"

목어. 한해가 저물무렵이면 사람들은 석양을 연상한다. 지는 해가 물결인 저녁놀이 아름다우면 인생의 황혼도 그럴텐데...

그걸 못본다. 꽃구경가자며 고려장 지내러 가는 아들의 등에서 혼자 돌아갈 아들이 길 옆을 열려하여 술이 편하다고 말한다. 최근 노인문제 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구가 75

생활 속의 불교 103.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파도에 시달리는 배가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 것은 복원력(復元力)이 있기 때문이다. 배가 좌로 기울면 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우로 기울면 좌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한다. 모든 운동작용엔 반작용이 있다. 평형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경계는 다름 아닌 복원력이다. 나로 하여금 바른 수행을 통해 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반작용인 것이다. 언젠가 내가 행하였던 선·구·의 삼업이 현실의 경계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게 내게 닥친 경계의 참 뜻이다. 선한 과보는 선한 과보대로 더욱 선업을 쌓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과보는 또 그대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일체 경계는 다 수행의 재료요 공부의 기회가 된다. 보왕삼매염불직지론서(보왕삼매론)는 이렇게 말한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고르세 양약을 삼으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공부하면서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쳐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굳세어지지 않나니 마장으로 수행의 벗을 삼아라.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된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람을 길게 하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리되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써 원림(園



협찬 : 윤종화 · 김정자